



# 귀인의 비유: 순종에 관한 교훈

**교**리와 성약 101편  
43~62절에는 성도들이  
미주리주에서 쫓겨난  
이유를 설명하는 비유가 나온다.

##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문을 품은 적이 있는가?

여러분은 이 종들처럼  
계명이 정말로 필요한지  
의문을 품은 적이 있는가?  
이 비유는 주님의 계명이  
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 
행복한 삶을 살도록  
돕는다는 것을 가르쳐  
준다.(또한 모사이야서  
2:41; 교리와 성약  
82:8~10 참조)

계명의 필요성을  
공감할 수 없다면, 어떻게  
해야 하는가?

- 이 주제를 공부하고  
주님께 우리가 “그것이  
옳은 줄 느끼[도록]” 도와  
달라고 기도한다.(교리와  
성약 9:8)
- 과거에 순종을 통해  
축복을 받았던 때를  
기억한다.<sup>1</sup>
- “[우리의] 신앙이 시련을  
겪[은 후에]” 이해하게  
되리라는 것을 믿고  
신앙으로 행한다.(이더서  
12:6)

이 비유에서 종들은 망대를  
짓기 시작하지만, 곧 그것이  
“필요 없[다]”라는 결정을  
내린다.(교리와 성약 101:49)  
그러나 그들은 망대를 짓지  
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침입하여  
포도원을 파괴할 때 아무런  
경고도 받지 못한다.

한 귀인이 종들에게  
포도원을 심고 나무와  
망대 주위에 울타리를  
쌓아 파수꾼이 그 땅을  
살펴볼 수 있게 하라고  
지시한다.

종들은 포도원을  
심고 울타리를  
두르지만 망대는  
짓지 않기로  
결정한다.

예상치 못한 원수가  
포도원을 파괴한다.



주  
1. 닐 엘 앤더슨, “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”,  
『리아호나』, 2020년 5월호, 18~22쪽  
참조.